

벨리니 몽라쉴레 프리미에 크뤼 '끌로 드 라 무쉐흐'

Domaine Henri Boillot Puligny Montrachet 1er Cru 'Clos de la Moucheres'



벨리니 몽라쉴레의 지휘자

#앙리부와이오 #부르고뉴 #샤르도네 #화이트와인 #벨리니몽라쉴레

브랜드	도메 앙리 부와이오 (Domaine Henri Boillot)		
지역	프랑스 > 부르고뉴 > 코뜨 드 본 > 벨리니몽라쉴레 > 프리미에 크뤼 '끌로 드 라 무쉐흐'		
품종	샤르도네 (Chardonnay)		
등급	AOC Puligny Montrachet 1er Cru		
종류	화이트 와인	용량	750ml
당도	드라이	알코올	%



품종블렌딩

[샤르도네 \(Chardonnay\)](#) 100%



테루아

벨리니 몽라쉴레의 프리미에 크뤼인 레 페리에르 (Les Perrieres) 밭에 구분되는 프리미에 크뤼인 '끌로 드 라 무쉐흐 (Clos de la Mouchere)' 밭으로 앙리 부와이오가 독점 소유하고 있는 모노폴 밭이다. 무쉐흐는 오래된 부르고뉴 방언으로 '밭'을 의미한다. 총 면적은 4헥타르이며 재식밀도는 헥타르당 10,000그루이고 포도나무 평균 수령은 80년이고 생산량은 헥타르당 50헥토리터이다. 토양은 점토질과 석회암질이다.

재배

간섭을 최소화 하는 루뜨 헤조네(Lutte raisonne) 방식의 포도 재배를 도입한 선구자로 온전한 토양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 또한 유기농 방식으로 포도밭을 일구며 어떠한 화학적인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수확량이 적고 품질이 높은 포도를 생산해낸다.

양조

양조 후 숙성시에 바또나주는 거치지 않으며 전체의 60%를 350리터 용량의 새 오크통에서 숙성을 거쳤으며 나머지는 1년 혹은 2년 사용 오크에서 숙성 후 출시한다.

노트

열은 금빛을 띠며 주변부에 살짝 초록빛을 띤다. 흰색 아카시아 꽃과 레몬 꽃의 풍미가 느껴지고 귤과 핑크 자몽의 풍미 또한 느껴진다. 밀도감이 좋고 풍성하고 바디감이 묵직하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순수하며 약간 짝조름하게 끝나는 피니시와 함께 뛰어난 미네랄리티가 인상적인 와인이다.

※ 와인의 빈티지와 블렌딩, 라벨 디자인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http://www.vinocus.co.kr/>
02-454-0750